

구강알레르기증후군이란?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민지

구강알레르기증후군은 청소년과 성인에서 가장 흔한 식품알레르기로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가 과일, 채소, 견과류를 섭취하였을 때 입술, 구강 부위에 가려움증, 두드러기, 부종 등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구강알레르기증후군 유병률

최근 국내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의 대략 40% 정도에서 구강알레르기증후군을 동반하며 나무 꽃가루에 감작된(알레르기 반응) 경우가 40%로 가장 많고, 25%의 환자에서 잔디 꽃가루, 20%의 환자에서 잡초 꽃가루에 반응을 보인다.

구강알레르기증후군 증상

구강알레르기증후군 증상은 아주 미미한 경우부터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일부의 경우 그 증상이 미미하고 외부로 증상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가 단순히 편식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꽃가루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이 음식물(과일, 채소, 견과류)을 섭취하고 나서 입술, 혀바닥이 가렵고 붓기도 하며, 입천장, 귓구멍이 가렵다고 호소하면서 해당 식품을 섭취하기를 꺼린다면 구강알레르기증후군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두드러기, 혈관부종(입술부종, 눈꺼풀부종) 등의 피부 증상, 목심, 기침, 쉼 소리 같은 호흡기 증상, 복통 및 구토 같은 소화기 증상 같은 전신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부 환자에서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부르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기도 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꽃가루와 구강알레르기증후군 식품

구강알레르기증후군이 발생하는 이유는 꽃가루항원과 비슷한 항원성을 지닌 식품과 반응하기 때문인데, 이를 교차 항원성이라 부른다. 대표적으로 자작나무의 항원이 사과, 체리, 살구, 배, 당근, 샐러리, 헤이즐넛과 교차 항원성이 있어 섭취 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썩은 샐러리, 당근, 망고에서 돼지풀은 멜론, 수박, 호박, 오이, 바나나에 교차 항원성이 있어 섭취 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구강알레르기증후군 증상이 발생하면?

구강알레르기증후군을 발생시키는 알레르겐은 대부분 열, 위산, 소화효소에 불안정하여 음식물 섭취 후 증상이 구강과 인두에 국한되고 대부분 바로 호전된다. 또한 열에 약하기 때문에 사과를 먹으면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애플파이나 잼처럼 익히거나 가공을 거친 식품에는 반응이 발생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알레르겐은 비교적 온도변화와 소화효소에 잘 견디는 경향이 있어, 전신증상인 아나필락시스를 발생시킬 수 있다.

평소 계절에 따라서 코 증상(재채기, 콧물, 코 가려움, 코막힘) 또는 눈 증상(눈가려움증)이 있는 경우 과일, 채소, 견과류를 섭취 후 구강알레르기증후군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내원하여 해당 식품 검사와 함께 꽃가루 알레르기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유한다.

치료는 원인 식품 섭취를 피하는 것이며,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특히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는 경우는 반드시 응급실에 방문하여 주사 에피네프린을 처방받아야 한다.